

대테러를 위한 선진국의 민·관 협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for Counter-Terrorism

권정훈*

Kwon, Jeong-Hoon

요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 민·관 협력

1. 서론

최근 테러사건의 특징은 테러 대상이 점차 다중이용시설이나 초고층빌딩과 같은 연성 목표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불특정 다수로 한정되는 등 테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유병후·박보라, 2016: 158)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최근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차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2. 본론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시 개인영역 수준에서 초기 대응자(first responder)들의 역할이 가장 활발하였는데, 이처럼 개인영역의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미국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의 85%가 정부보다 민간 부문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콤포트(L. K. Comfort)는 테러 발생 이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 동안 'CONPLAN 2001'에 의해 투입된 미국 내 대응조직들은 모두 377개 기관과 단체였으며, 대응조직들의 수를 보면 공공조직을 대표하는 연방과 주·지방정부는 44.6%(168개),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민간 부문들은 55.4%(209개)를 차지하면서 공공조직보다 민간 부문이 초기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이 더 많았음을 밝혀냈다(Louise K, Comfort, 2002: 103; 김정기, 2019: 105 재인용). 9·11 테러의 대응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가진 자원(resource)에 의지하였으며 이는 초기 대응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특히 초기 대응자들의 역할은 현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소개(evacuation)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2004: 316; 김정기, 2019: 104 재인용). 또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시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수년에 걸친 계획(planning), 훈련(training), 연습(exercising)과 수백 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의 결과였다. 특히 138개의 공공, 비영리, 민간 부문 조직들이 협력적으로 대응했고 지역공동체들은 회복을 돕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이 중에서 민간 부문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들의 초기 대응 역할을 보면 개인영역에서의 참여,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응급 의료체계의 완벽한 대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헌신적인 지원,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으로서 대표적인 단체인 전미 재해 봉사협회(NVOAD)와 FEMA와의 협조 관계 하에서 연락 및 교육체계 공유 등이다(김정기, 2019: 108-111 재구성).

* 정회원·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jhkwon@cnsu.ac.kr

한편, 영국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언론이 위기관리를 위한 협조자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은 사고나 재난 보도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 등 위기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서 언론이 기능하고, 재난(위기) 전문 기자제가 정착된 결과 전문적이고 치밀한 해석을 포함한 심층보도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언론 비상사태 포럼(Media Emergency Forum)을 운영하여 위기관리와 관련한 언론의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골드조정그룹의 언론 담당, 내각의 언론 협조 및 조정센터 등 위기관리 조직 및 정부 내에 對 언론 관계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별 전략적 위기관리계획에 언론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김선빈 외, 2005: 9-10).

3.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빈·김용기·민승규·고현철 (2005) 영국에서 배우는 위기관리, CEO인포메이션, 530, pp.9~10.
김정기 (2019) 한국 통합방위체제의 민간부문 참여 방안 연구: 위기관리 대응단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6, pp.104~111.
유병후·박보라 (2016) 소프트 타겟 테러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9(3), p.158.
Louise K, Comfort. (2002) Rethinking Security: Organizational Fragility in Extreme ev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 p.103.